

로마 풍속과 오비디우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4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사람들이 묘비명을 새기기 시작하던 시기에
글 때문에 제일 처음 추방당한 사람은
오비디우스였다. 사람들은 그가
《사랑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 책에는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보다 더 물의를 빚을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

“아티메투스가 날 임신시켰어.” / “리투스, 자넨
그저 그런 놈이야.” / “키우스, 자네 중기 고름이
터져 지난번보다 더 화끈거리길 바라네.” 고대
이탈리아의 남부, 캄파냐 지방의 폼페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담벼락에서 자기에게 말을 거
는 낙서를 읽으면서 즐거워했을 것이다. 물론 자
신을 혈뜰는 낙서로 유명해진 사람만 빼고 말이
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생활양식을 고스란히
보전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폼페이 유적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남에게 알
렸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공개적인 모욕이라 할
낙서로 배신한 연인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
를 놀려댔다.

묘비명이 유행했던 로마 제정기

폼페이는 해상무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
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리스인이 기원
전 6세기부터 정착했지만, 기원전 89년부터 로마
의 지배를 받는다. 그로부터 90년 뒤, 서기 79년 8
월 24일 폭발한 베스비우스 화산재 속에 묻힌 폼
페이는 거의 1700년 동안 고요히 잠을 자다가, 19
세기 중엽부터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굴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폼페이 유적에서 문자
그대로 그리스-로마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다시



도시 곳곳에 글이 넘쳐 있던 폼페이 유적.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고, 무엇
을 먹었으며, 무슨 일로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몇 줄 낙서만 가지
고서도 우리는 문자해독 능력이 상류계급의 특
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고대의 낙서가 아니라 파피루스
에서 세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문맹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점, 민중 가운데는 글을 쓸 줄 아
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
에도 문학, 다시 말해서 고전이 있었다는 점. 그
러므로 폼페이의 낙서가 말해주듯, 선거 벽보가
모든 집의 담벽을 붉은 색이나 검은 색으로 뒤덮
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홍보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중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출을 위
해서 자기 집 담장을 내주고, 모든 유권자에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다. 심지어 창녀도
시행정관 후보를 지지하는 벽보를 붙였다. 물론
후보가 창녀의 지지를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말
이다.

폴 벤느(P. Veyne)에 의하면, 낙서, 벽보, 상점
의 간판이 즐비한 도시의 거리뿐만 아니라 도시

어귀에도 글이 널려 있었다. 길손이 어떤 도시를
찾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묘비명이
었다. 두 줄로 늘어선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길손
은 땅속에 누워 있는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
었는지 보여주는 돈을세김과 글을 볼 수 있었다.
묘비는 길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길손이여, 내
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읽어보시
오... 이제 그대는 나에 대해서 읽었으니, 조심해
서 떠나시오.” 묘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묘비를 읽을 길손의 대답도 미리 돌에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그대 역시 안녕히 계시오.”

고고학자들은 고대 로마의 묘비명을 10만 개
이상 발굴해 연구했다. 그 결과, 로마인이 묘비명
을 새기는 일은 1세기부터 유행하다가 3세기부
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이 시작
돼서 안정기를 맞이했을 때 묘비명은 유행했고,
3세기 정치적 혼란기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다.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끝나고 광기를 부리는
황제들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지만, 로마는 1세기
말부터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로마의 평화’
(Pax Romana) 시대를 맞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는다. 이승의 정치적인 안정이 저승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인가?

오비디우스의 추방

귀족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묘비명을 새기기 시작하던 시기에 글 때문에 제일 처음 추방당한 사람은 오비디우스였다. 사람들은 그가 《사랑의 기술》(Ars Amatoria)을 썼기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보다 더 물의를 빚을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 그가 이 시를 쓴 것은 기원전 2년에서 1년 사이고, 로마에서 토미(오늘날 루마니아의 콘스탄차)로 추방당한 것이 서기 8년의 일이니까 이미 10년 동안이나 이 시는 널리 읽혔다. 모두 812줄짜리 시는 그리스-로마의 신화, 민간전승, 사건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으며, 가끔 실생활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 예를 들어, 시인은 로마의 젊은이에게 사랑을 간청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스럽고, 쉽고, 친숙하고, /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달콤한 말투를 쓰도록 하라. / 그래야만 그녀는 그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리니. / 만일 그녀가 편지를 읽으려 들지 않거나, 열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다 해도, / 언젠가 읽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지니. 언젠가는! / ... / 쇠종도 계속 때리면 구멍이 나고, / 아무리 딱딱한 땅도 쟁기질에 부숴지게 마련이다 / 바위보다 단단한 것이 있든가, 또는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있든가? / 그러나 물은 긴 세월을 두고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 오로지 기죽지 말고 끝까지 버틸지어다. ...” (459줄 이하)

우리에겐 낮은 로마의 풍속

도끼땀을 하지 말고 끝까지 찍으면, 오디세이가 트로이로 원정을 떠난 뒤 20년간 만나지 못한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한 사람들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정숙한 부인을 유혹하기 위해 남편을 속이는 기술(611줄 이하)도 있다. 그런데 오비디우스만이 이런 기술을 알고 있었고, 남에게 처음 가르쳤을까? 현실 생활에서 오비디우스의 시가 없었더라도, 귀족 부

글 때문에 제일 처음 추방당한 사람은 오비디우스였다. 그러나 그가 쓴 《사랑의 기술》은 현실생활보다 더 물의를 빚을 만한 요소는 없다. 왜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미움을 샀을까?

오비디우스를 추방한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



인은 젊은이의 동정을 노렸고, 남자는 미동을 납치했으며, 황제 부인이 밤에는 궁을 빠져나가 갈보짓을 하면서 성욕을 채웠을 것이다. 어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 메살리나뿐이겠는가? 6세기 동로마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부인 테오도라도 은밀한 곳에 먹이를 놓고 새들이 쪼아 먹게 만들며 춤을 추는 무희 출신이 아니던가?

왜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미움을 샀을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 율리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시인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마의 남성은 아내, 아들, 딸, 하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했다. 만일 아내가 그를 속이면, 사람들은 그가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거나, 단호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무능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 간통을 성행토록 만들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같은 불만의 싹을 잘라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집안 사람의 비행을 누구보다 먼저 세상에 고발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딸 율리아의 육체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로마에서 추방했다. 황제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야 할 집안일을 오비디우스가 먼저 알고 있는 데 대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아무튼 고대 로마인의 풍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다. 물론 상상을 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모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서양문명의 추적

우리나라에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그런 흥미를 증명한다. 그다지도 낮은 세상이 반쯤 문명화된 게르만 민족에게 정복당한 뒤에 서양의 문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과정을 추적하면 흥미진진하다. 속을 채워 약간 상한 맛이 나게 만든 생쥐 요리를 손님과 나눠 먹으면서, 아들이 가져온 웅변 숙제를 듣는 로마인의 생활을 상상해보자. 폴 벤는 로마의 꼬마가 해결할 웅변 숙제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겪을 운명이 미리 암울하게 기록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뿔에 빠진 부인은 자기를 피어 몸을 더럽힌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하거나 그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어떤 남자가 하루 밤에 부인 두 명을 범한다. 부인 하나는 그를 죽여달라 하고, 다른 부인은 그와 결혼시켜 달라고 한다.” ●